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뚝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가사문학관과 호수생태공원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호 주변에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산실인 소재원, 식영정, 환벽당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지난 2006년 135억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도 위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어촌공사 광주호 뚝 높이기 환경 평가 초안 들여다 보니

구체적 근거없이 "호수생태공원 일부만 잠긴다"

영산강환경청, 가사문학관 침수·녹조발생 저감대책 등 보완 지시

광주호 뚝 높이기 사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기초보고서가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져 전방이다. 이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광주호와 담양군, 인근 주민 등이 주변 가사문학관 및 135억을 투입해 조성한 호수생태공원의 침수 피해와 투입 예산에 비해 낮은 사업의 타당성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가사문학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호수생태공원 일부만 침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나온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각 부문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평가서 모든 내용 구체적이어야">=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내용이 조사방법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환경 부문에서 대기질 영향에

측결과 대기환경 기준 초과 또는 근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제시하도록 했다. 또 검토서에는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예측했으나 토지이용변화, 폐기물발생 및 처리, 온실가스 흡수원인 수목 훼손 등에 따른 영향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도 지시했다. 수환경 부문에서는 평가서에서 제시된 침사지 평면도가 미흡한 구조로 사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제방이 높아지면서 녹조 발생일·

유입 토사퇴적·저수지 수질 등의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호수생태공원의 계획 홍수위가 기존 홍수위보다 감소하는 사유와 계획 유입량이 기존 유입량보다 감소하는 사유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폐기물·소음 등 추가 대책 마련해야">=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외에도 토취장·점토장 개발 부지가 저수지로부터 12km나 떨어져 있어 대안을 강구해야하며 토취장 공사 시 축사의 경우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도 소음기준 이내로 낮추지 못해 추

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내 방치 폐기물 및 비위생매립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있을 경우 폐기물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하기도 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의 유입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 저수지 상류부에 추가해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제시하도록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역 내 관심이 높은 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요, 본안보고서에서는 이를 지적사항이 모두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기기자 chadol@kwangju.co.kr

'저축銀 비리' 국정조사

여야 특위구성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1일 오후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표인과 황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인이 전했다.

여야는 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4월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한 특별법 관련 11개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의안처리개선법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3명씩 6인 소

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도입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일단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특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실무 작업에 착수하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즉각 국정 조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선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런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문책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 MB 친인척·측근 감찰 더 강화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친인척과 측근들의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사전 경고나 주의를 준다는 것이다.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기 후반기로 갈수록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친인척 및 측근들과 관련된 작은 첩보라도 입수하면 사전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사원을 비롯한 사전 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면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부산저축은행 고문 변호사가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질을 흐리기 위한 고의적 음모"라고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저축은행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인재 100~300명 채용 가능

지방대생, 공공기관 취업문 숨통 트일까 지역대학가 '우선 채용' 방침에 화색

청와대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우선 채용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하반기 취업 시즌을 앞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이나 영남권보다 취업률이 평균적으로 낮은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가뜰이나 팍 막힌 취업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주요 대학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 취업 준비생들은 지역 기업이 절대적으로 적은 데다 생활 여건상 취업 후, 수도권이나 타지역 근무가 용이치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지역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대기업에 비해 처우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 취업 준비생

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선호, 이 분야 취업 경쟁률은 수년째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준하는 대우와 공무원에 필적하는 고용 보장 탓에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도 많지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대생 우선 채용 소식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대학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들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16개 기관이 이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0~300명 정도 지역 채용이 가능한 점과 이전기관 중 한국전력공사가 지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취업지원 기구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석유공사·공항공사 등 전국 11개 공공기관 신입 직원 출신학교 3개년 현황(2007~2009년)에 따르면 전남대는 총 159명이 입사, 고려대(202명)·서울대(180명)·한양대(178명)·연세대(173명)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국전력 취업만을 놓고 보면 총 72명

이 입사해 1위에 올랐다. 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중·상위권 학생을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했던 점에 비해, 이번 정부의 방침이 취업을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 취업지원과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거의 매년 취업자 수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공기관 취업률이 높은 만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발빠르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선대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중·상위권의 공공기관 지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용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학생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JOYTRAVEL 대표이사 최급환 대표전화: (062)234-3222

파격특가 광양해리로 떠나는 일본 자유여행 4일 6월 8일, 22일, 26일 ₩98,000

파격특가 장항에서 오렌지리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2일 ₩69,000 3일 ₩98,000

중국 광저우출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현항에서 대인해리로 떠나는 고구려역사탐방!! 6일 대련 심양 백두산 고구려유적 ₩659,000원 4일 연길 백두산 ₩1,259,000원

동남아 무안출발 무안출발하는 달콤한 보라카이 지방!! *운항일 7월 23일~8월 24일 2박4일 ₩799,000원~(수요일출발) 3박5일 ₩849,000원~(토요일출발)

인천출발 6일 베트남&캄보디아 ₩724,000원~

미주 7일 LA 자유여행 ₩1,590,000원~ 7일 미서부 정통 미서부일주 ₩1,990,000원~ 8일 미서부/디즈니 ₩2,190,000원~

지중해 9일 터키/그리스 ₩3,199,000원

제주도 오렌지리&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139,000원~ 장항-제주도 ₩159,000원~ 항공 광주-제주도 ₩249,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2박3일 ₩309,000원~

광주에서 출발하는 홍도 1박2일 ₩177,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년형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